60억 번의 화평과 오리지널 화평원리

(히12:14~29)

14.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5.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16.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17.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60억 번의 화평과 오리지널 화평원리>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60억 번의 화평과 오리지널 화평원리’

여러분! 오늘 본문 첫 마디에,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주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화평함을 따르라는 얘기는 열망하고 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성경에서 늘 말하는 거려니 하고 넘어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걸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화평함을 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신천지 이단의 교주와 여러분이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김정은과 아베 수상 그런 정도라 그러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 달라는 차원에서 내 나름대로의 화평을 위한 노력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통일교 그리고 신천지 그리고 무슨 뭐 박 하나님 내가 성령이다, 그리고 요즘 말하는 구원파.

아니 이런 이단들과 어떻게 화평을 합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이거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이단들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과의 화평.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의 화평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부부싸움 안 하세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나라와 민족 간의 다툼과 분쟁에 이르기까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화평을 추구하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지구에 지금 60억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60억의 사람이 하나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하나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씨가 지금 계신다는 것도 하나의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여성이신 박근혜대통령이라는 것도 하나의 사실인데, 문제는 60억 인구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다 제각기입니다.
나는 관심 없어, 나는 오바마 대통령이 좋더라, 나는 오바마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자체가 싫어, 나는 미국의 많은 도움을 받은 우리 민족을 생각할 때 나는 미국이 좋아.
가지가지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오바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실인데, 그 사실을 받아들여서 판단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60억이다 보니까, 60억 개의 세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점에서 똑같은 사실은 단 하나의 사실이지만, 10사람이 받아들이면 10사람이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10개의 세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지구 안에 있는 인간 세상이 60억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 이웃집의 박 씨 아저씨가 살고 있는 세상이 포개질 때 화평이 일어납니다.
이 지구 위에 진행되고 있는 삶의 영역들 중에서, 박 씨 아저씨도 관심이 없고 나도 관심이 없는 부분은 그냥 저절로 포개집니다.
그리고 또, 나만 관심이 있는 것, 박 씨 아저씨만 관심이 있는 것도 포개질 수 있습니다.
난 관심이 없으니까 박 씨 아저씨가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이 없는데, 박 씨 아저씨도 관심이 있고 나도 관심이 있는 부분으로 오면, 이게 부딪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를 식민지한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한반도가 식민지화 된다는 하나의 사실이, 일본에게는 굉장히 국익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그들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사실을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악한 일이고 치욕적인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세상이 충돌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60억 인구, 모~든 사람과 화평을 하려고 하는데, 60억 개의 세상이 있고 모~든 60억의 사람들이 각자가 사실로써 주어져 있는 하나의 세상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고, 그 하나의 세상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그 세상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과의 화평은 60억 번의 화평을 이루어내야 모든 사람과의 화평이 가능한데, 어떻게 60억 개의 세상과 내가 생각하는 세상을 다 맞추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분쟁과 다툼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겁니다.
부부싸움이 왜 생겨납니까?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는,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구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는 이웃과 이웃, 더 크게는 나라와 민족 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해석이 다르고 판단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타락 때문에 이렇게 된 거에요, 타락 때문에.
그러면 타락 이전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보세요!
타락 이전에는 60억 인구가 아니라, 두 명의 인구가 있었어요, 이 지구 위에 아담과 하와.
근데 두 명이 있건 60억이 있건 숫자의 많고 적음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두 사람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두 사람이 있었지만, 주어져 있는 사실로서의 하나의 세계가 해석되면서도, 하나의 세계가 유지가 되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져 있는 하나의 세계 그 세계 속에서 내가 만나는 하나의 사건, 하나의 사실들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석하고 판단해 주시는 대로 받

아들여서,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해석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하나의 세상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두 사람이 각자가 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서 살고 있으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평의 오리지널한 화평원리입니다.

무엇이 그렇다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화평을 이룬 것은, 둘이 서로 정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의기가 투합해서가 아닙니다.
둘 다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있으면서, 오직 선악의 판단과 내게 주어지는 상황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만 의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화평이 가능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박 씨 아저씨와 화평을 이루려면 나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박 씨 아저씨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박 씨 아저씨와 내가 만나는 하나의 사실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때만 가능하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박 씨 아저씨를 보는 관점도 하나님께서 박 씨 아저씨를 보고 계시는 관점을 따를 때, 박 씨 아저씨가 나를 볼 때도 자기가 나를 보는 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 판단과 해석을 받아들여서 나와 얘기할 때,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차 바퀴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퀴살들이 여러 개가 가운데 축으로부터 방사되고 있는데, 이 살과 살이 옆에 있는 살들이 서로 화합하고 제자리를 지키며 질서정연하게 유지되면서, 마차 바퀴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에 집중해야 됩니다.
살들이 서로가 너무너무 좋다고 붙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축으로 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살과 살들은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에요, 바이올린 연주자와 첼로 연주자가 너무너무 마음이 서로 잘 맞는다고, 둘이서 바라보고 연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둘이서 완벽한 조화 속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둘 다 지휘자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평의 오리지널 원리에요.

사람들끼리의 화평이라는 거는, 아무리 사람들끼리 서로가 좋아 가지고, 꿍짝이 맞아서 아이구 네가 좋고 내가 좋다해 가지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 가짜 화평이고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죽자고 좋아 해가지고 결혼해서 3년 안에 이혼하는 게 삼분의 일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좋아하지 않으면서 억지로 부모님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들은 이혼이라는 걸 몰랐어요, 물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랬지마는, 이혼 안하고 다 살았지만 지가 좋다고 자기들끼리 달아올라 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치고 티격태격 싸우지 않는 사람이 없고, 헤어지지 않는 부부의 비율이 점점 작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들끼리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원리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 하라는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결론적으로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실천해 나갈 때에, 믿음은 어떻게 표현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늘을 올라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차원의 세상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시지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더불어 내 앞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것, 보이는 그 어떤 대상보다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상대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는 중에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 모여 살아야 되는 공동체적 성격을 염두에 두면서 믿음의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뭡니까? 화평을 추구하는 거예요.
화평을 추구하는 건 뭡니까? 거꾸로 말하면,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거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과 내가 화평할 수 있는 원리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원리에요.
지금 말씀하신 화평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은 반드시, 그 사람을 앞에 두고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할 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상대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 나를 상대할 것이 아니라 속마음으로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상대할 때, 그 사람과 내가 바이올린 연주자와 첼로 연주자가 조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전한 조화 속으로 들어가고 샬롬 안으로 들어가고, 헬라어의 '에이레네 가 평화, 화평이거든요, 그게 구약의 샬롬입니다.
그 에이레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리지널 원리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아내를 놔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남편을 놔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왜?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이 상대하고 계시는 중이니까.
하나님이 상대하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상대하시는 중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아내에 대한 판단, 아내에 대한 생각, 아내에 대한 뜻을 남편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직접 아내와 접촉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을 땐 좋다가도, 너 없으면 못살겠다는 말을 하고 나서 30분 뒤에 싸웁니다.
이거 웬일입니까?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해갖고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한 번 해보세요, 여러분.
부부생활 즐거워져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아내만 바라보고 있으면 흠투성이에요, 남편만 바라보고 있으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아내가 선물이고 남편이 은혜에요.
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 거룩함을 이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람들과의 화평을 모든 사람과의 화평을 이뤄야 되는데, 결국은 내가 모든 사람과 60억 인구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다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오리지널 원리 하나만 행하면, 60억과의 화평이 가능해 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세상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러려면 십자가에서 내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 이건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 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해석하고 있는 세상이 죽어버리고, 하나님만이 들어오심으로써,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세상을 내가 살아간다.’
이게 화평의 오리지널 원리인데, 문제는, 내가 박 씨 아저씨를 만나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데 박 씨 아저씨는 전혀 아니거든요.
박 씨 아저씨는 여전히 당신 자신이 생각하고 해석하는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그걸 들이밀고 주장합니다.
이럴 때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룩함을 따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의 무게의 중심은 사실은, 화평함 보다는 거룩함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거룩함을 따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자! 박 씨 아저씨가 자기가 해석하는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게 뭔가를 요구합니까?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박 씨 아저씨에게 비위 한 번 맞춰주면 기분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무릎 한 번 꿇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떡하라는 겁니까?
거룩함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요구를 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게, 끊어낸다는 것이고 구분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자기가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에 맞춰주고, 그것에 따라 조율하고 그것에 따라 타협하지 말고, 나는 오직 그 모~든 자기가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해석과 끊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고 구분되어 있는 하나님의 해석과 하나님의 판단과 뜻만을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거룩함을 쫓아가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과 화평 하라는 얘기를 해놓고는 그 다음에 쓴 뿌리 얘기를 합니다.
쓴 뿌리가 신명기 29장에서 따온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할 때 한 얘기거든요?
권면은 내용이, 왜 쓴 뿌리라는 얘기가 나오게 됐냐면, 독초와 쓴 나물을 내는 그런 뿌리들이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본문 그대로 말하면,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떠나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

게 되면서도, 내가 아무 잘못이 없고 나의 인생의 평안만이 주어질 것이라고 떠들고 확신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쓴 뿌리라고 얘기 한 겁니다.
다시 말해, 히브리서 저자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고 말해 놓고는,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 하면, 마음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자기 이해관계를 따라 해석해 나가는 사람들과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의 해석의 관점과 그들의 해석의 판단에 의해서 나오는, 요청과 바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는 하는 겁니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그래 놓고서는, 쓴 뿌리가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들을 경계하라, 그리고 음행과 에서와 같이 보이는 것을 얻겠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장자의 축복을 팔아먹는, 그런 어리석고 망령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살피고 경계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화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만의 몫을 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화평 자체를 결과로 끌어낼 수 없습니다.

이북의 김정은, 일본 아베 수상, 정말 못돼먹어 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계~속 도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느냐?
그 사람들이 도발하고 있는 그 도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손해 볼 것을 손해로 해석하지 말고, 손해로 해석하고 있는 '나'를 죽여 버리는 겁니다
나의 세상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세상이 나에 죽는다는 사도바울의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내가 해석하는 세상을 죽여 버립니다.
그렇게 까불고 도발하고 있는 아베나, 김정은이나, 구원파나, 신천지나 이러한 단체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카메라로 찍듯이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끝이에요.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그 이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거룩함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의 오리지널한 원리가 뭡니까?
거룩함을 따르는 겁니다.
그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고 싶으시면, 아내와의 화평을 이루고

싶으시면, 아내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뭡니까?
아내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생각과 다르고, 인간의 판단과 다르고, 인간의 바람과 다르고, 인간의 계획과 다른 구분되시고 격리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얘기에요.
사람들과의 이루어질 수 있는 화평의 오리지널한 원리가 뭡니까?
거룩함을 따르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계심을, 사람을 앞에 두고 믿는 거예요.
사람을 앞에 두고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 아니냐?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상대하면 내 속의 죄가 묻어납니다, 그 사람에게도 손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은, 그 사람을 앞에 두고 내 마음으로 그 사람보다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 갖고 계시는 그 뜻과 판단을 받아들여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최선의 사랑이고 그 사람을 위한 최고의 존경입니다.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역시 영혼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말고.
이북의 김정은, 마찬가지 입니다.
일본의 아베 수상,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0억 번의 화평을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오리지널한 화평의 원리를 따르게 되면, 단 한 번에 의해서 60억 전체와 화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붙잡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60억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선적인 나의 상대 대상이라는 걸 고백하고 믿고 그렇게 상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60억과의 화평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죽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해석만을 따라갈 뿐입니다.
이게 인류를 위해서 최선의 길이고, 60억과의 화평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고, 최고의 길입니다.
언제나 사람을 따르지 않고, 사람에게 비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세상에 대한 판단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 다음 부분이 두 단락이 나오는데, 결국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걸 믿는 것이다.
그 상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감추어져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단락은 보이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상받기를 원하며 살았다가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불로 사르시는 분이다.
이 온 천지가 다 불로 살라져서 천체가 체질이 녹아지는 그런 때가 오게 될 때,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리지널한 화평의 원리! 그건 바로 거룩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을 앞에 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60억 인구와 60번의 화평이 아니라, 단 한 번으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됨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화평의 오리지널한 원리인 사람을 앞에 두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이 거룩함을 따름의 원리를 따라 살 때에, 우리의 삶속에 하늘의 샬롬이 경험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